

포항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채굴은 꼭 필요한가.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대왕고래. 흰수염고래라고도 부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이다. 다 큰 대왕고래는 길이 23~27m, 몸무게 160톤에 달한다. 지속적인 포경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최근 개체 수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동해에서는 1940년대 이후 대왕고래를 관찰한 적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최근 동해에서 대왕고래가 회자되고 있다.

근거 부실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2024년 6월,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정브리핑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석유/가스의 채굴 사업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의 이름을 붙인 이유가 짐작이 간다. 울산 앞바다에서 개발되는 해상풍력 단지에 사업자가 ‘귀신고래’라 이름 붙인 것을 보니, 요즘 에너지 산업계에 꽤 유행인가 보다.

이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는 취임 이후 줄곧 김건희 스캔들을 비롯하여 무능과 실정으로 비판받았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그 경제적 가치가 삼성시총의 5배에 달한다고 강조하면서 말이다. 처음부터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의심의 근거는 곳곳에 있었다. 해당 구역에 대한 석유/가스 탐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2007년부터 15년간, 석유공사와 함께 해당 광구의 탐사 사업에 참여해 왔던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사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2년 철수했었다. 그런데 채 2년도



▲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브리핑했다. 사진 : 대통령실

지나지 않아, 대량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시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추가적인 탐사도 없이, 미국 기업이 기존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심지어 이 액티지오라는 회사는 본사가 미국의 한 주택에 위치하는 소규모의 공신력 없는 업체이며, 석유공사와 계약 체결 당시 법적 실체도 없었다든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논란 속에서 액티지오 관계자는 시추해 보면 알 것이라고 답할 뿐이다. 정부는 한 번에 1,000억 원이나 드는 시추를 5회나 실시할 계획을 시작했다.

예산 삭감에도 프로젝트 강행하는 석유공사

실체 자체도 논란인 액티지오의 분석에 의존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비밀에 휩싸여 있다. 예를 들어, 녹색연합이 지난 6월 석유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됐다.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지만, 윤석열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받는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석유공사는 서류 송달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고 매장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24년 말 국회 예산 특위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결 직전인 2024년 12월 12일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때 자신의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제시했는데, 이 중 대왕고래 사업 예산 전액 삭감도 있었다.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회사채 5,900억 원을 발행해 시추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이미 부채가 많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지만 아랑



▲ 어민들은 시추 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상 시위까지 벌였다. 사진 : MBC 뉴스 갈무리

곳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중순부터, 노르웨이 기업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자리를 잡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어민들은 시추 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상 시위까지 벌였다. 시추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서식지 파괴로 홍게 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공사는 홍게잡이 성수기인 겨울을 피해 금어기인 내년 봄여름 시추하라는 어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더라도

그런데 정부의 희망대로 대왕고래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채굴해도 되는가. 기후 위기 시대다. 과학자들은 매장량이 확인된 석유, 가스, 석탄일지라도 신규로 채굴해서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 이후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채굴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연간 배출량의 9배에 달하는 58억여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매장된 것을 알아도 그냥 놔두어야 한다.

한편, 험난한 해상 설비 위의 노동조건은 어떤지, 노동자 건강권은 보장될지도 이번 기회에 살펴봐야 한다. 석유 채굴 작업은 그 자체로 사고 위험이 높고, 건강상 유해 요인에도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작업이다. 여기에 더해 해상 작업이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위험은 해상 석유 시추 및 채굴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점차 늘어나는 해상풍력 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새로운 과제다. 